

성가정주일

기도서 P. 233 B해
제1독서(집회 3, 3-7, 14-17)
제2독서(골로 3, 12-21)
복음(루가 2, 22-40)

숲정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이수현
주간 조성호
편집점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1979년도 전주교구 사목교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 육성의 해

□ 머릿말

1. 인사

희망의 새해를 맞아 교구내 성직자·수도자·평신도, 그리고 선의(善意)의 시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3·1 독립운동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3·1 독립정신은 잃은 것에 대한 회복운동이었으며, 지금도 이 땅에는 되찾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2. 지난해의 반성

우리 교구는 지난해의 목표를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다짐하는 해」로 정하고 나름대로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아쉬움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노력한 본당·단체·기관들에게는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7·6사태>때에 보여준 일치와 협조에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국의 국민 경시(輕視) 풍조에서 비롯된 무성의한 뒷처리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 있었던 약간의 불일치는 앞으로 우리의 일치를 다지는 거울이 되어야 하겠음을 지적하며 당부합니다.

3. 금년의 목표

나는,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제시되었던 목표들이 교구장설 50주년인 1981년을 기해서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자, 금년을 특별히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육성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이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 제대로 육성될 때에 지금까지의 부족했던 일들이 보완될 수 있다고 믿어서입니다.

□ 성직자·수도자·평신도가 해야 할

일들

4. 사제가 할 일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서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리스도한테 받았습니니다.

사제는 주교직의 조력자요, 주교와 더불어 한 사제단을 이룹니다. 따라서 사제단 안에 형제로 일치를 이루며, 평신도들을 목자적인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평신도들의 지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더 많은 창의성과 자발성을 발휘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직

활동에 봉사하기로 헌신한 평신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조건이 정의와 평등과 사랑의 요청에 합치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5. 수도자가 할 일

수도자들은 청빈·정결·순명을 복음적 권고대로 실천하여 평신도들을 완덕(完德)에로의 소명으로 일깨워 주는 증거자들입니다.

수도자들은 봉사와 친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봉사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지상적인 가치보다는 자신을 포기하는 뼈아픈 자고(刻苦)로 평신도들의 완덕생활에 모범과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6. 평신도가 할 일

평신도들도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司祭職)·예언직(預言職)·왕직(王職)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계안에서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자기 나름으로 완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기도·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희생·전례생활(사제직), 말씀의 선포·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범을 통한 복음 증거(예언적),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이룩되는 사회진실(왕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이 일을 위해 성직자와 협력하고 일치해야 하며, 교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를 아끼지 말 것이며, 성직자들의 지도에 존경과 사랑과 순명의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기초

7. 사도직의 목표와 평신도 활동의 요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구원과 현실 질서의 개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을 완수 <2면에 계속>

숲정이 산책



(2) 순 정 이

(1면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 평신도들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알리고 은총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질서를 그리스도교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의 정세는 보다 활발하고 보다 광범한 평신도 활동을 요청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의 제반 사정들은 평신도 사도직의 무대를 무한히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분야의 대부분은 평신도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평신도 교유의 장(場)이 되고 말았습니다.

8.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기초인 영적생활

평신도 사도직의 풍요한 결실은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일치할 수 있는 영적생활(靈的生活)의 심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활기에 넘치지 못하고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구조적인 악, 현재의 재물, 순간적인 쾌락에서 해방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례하는 나그네의 처지를 망각하고 현세적인 유혹에 발목을 잡혀 쉽게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서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9. 가정과 본당 공동체

평신도들의 활동무대 근거지는 가정과 본당, 그리고 이 사회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요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찬 가정의 성화야말로 신앙 증거의 첫걸음입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 형제, 자녀와의 사랑 안에서 이루는 일치가 그 뿌리를 이룹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의 사제와 수도자는 물론, 평신도들도 교동중에 있는 평신도들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본당에서의 활동에서도 본당내의 모든 단계간에 일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당내의 소집단(小集團)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할 수 있는 기초공동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당 상호간에도 긴밀한 협력이 요청됩니다. 특별히 여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의 분과별 지구모임은 교회 공동체에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몇가지 방안들

10. 교 육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쉽게 그리스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합시다.

우리 교구의 모든 평신도들은 시간이 있는대로,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어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응답합니다. 이러한 과정(교육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웃에 눈을

들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에 우리의 심장은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손과 발은 부지런히 움직일 것입니다. 특별히 버림받고 보잘 것 없는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과 형제애를 나누시다.

본당에서는 남자 청장년들·젊은이들·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하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공소 단위에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활동목표를 세워 정성껏 교육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외된 계층의 형제들에게 깊은 관심 갖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지성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1. 활성화는 조직 사도직

우리 교구에서는 많은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열심히 재, 그리고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다양하게 조직화된 사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사도직 활동도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케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구조적인 악을 대항하여 그리스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平協)는 그 조직이 더욱 강화되고, 평협 산하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고한 유대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소외된 농민들을 위한 조직 사도직이 더욱 뿌리를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반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아니 여건조성을 서둘러서라도 평신도 인재양성에 주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2. 지원방안—사목협의회·교육 홍보 부서 구성

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의 뒷받침을 위해서 우선 교구 사목협의회(司牧協議會) 구성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목협의회는 성직자·수도자·평신도로 구성되며, 교구의 제반문제에 대한 교구장의 자문기관입니다. 나는 이 사목협의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정표를 알아 듣는데 힘쓸 것이며 여러분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노력하여 교구의 일치점을 찾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 홍보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교육·홍보 담당의 부서를 신설하여 사목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도하겠습니다.

□ 맺 음 말

13. 맺 음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형제들이 많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일어나 웨질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언직을 수행하다가 고통을 받는 형제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同參)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짐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금년을 「평신도 사도직 활동 육성의 해」로 정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현재의 질서를 그리스도교화하는 사도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영적 생활의 심화를 바탕으로 해야됨을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직자·수도자·평신도가 하나되어 꾸준히 연구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짐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일치의 성령, 지혜의 성령, 굳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1979. 1. 1.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 재 덕 주교



□평화의 날 메시지(요약)

평화를 가르치는 일은 평화에 이르는 길

(To reach peace, teach peace)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79년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제민족, 제단체, 개인과 개인 사이 그리고 개인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한 평화의 능력들이 온전히 발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제하시고 전임교황 바오로 6세의 뜻을 이어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가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1. 어려운 과제

평화는 인류의 염원이다. 이를 위해 많은 개인, 단체, 그리고 국가들이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심지어는 평화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시키기까지 한다. 평화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전쟁은—방어전 일지라도—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제민족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분쟁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협상(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보다 높은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2. 평화를 위한 교육

우리는 먼저 저 불행한 분쟁사태 이면에 숨겨진 평화의 증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평화에로의 길이 바람직하고도 가능하며 강력하고도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업적들과, 폭력 없는 질서에 대한 염원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화에 대한 새로운 언어와 행동이 필요하다. 평화를 위한 헌신은 듣고 이해하며 존경하고 예의를 지키도록 한다. 그리고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화라는 보화를 찾는 이들에게 가르칠을 줄 수 있다.

부모와 교사들은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의 해이다. 어린이들은 본래부터 평화에 공헌하는 바를 깨달아야 한다.

젊은이들은 평화의 등대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며, 안이한 길을 버리고 폭력을 거부하라 정의와 자유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특히 공격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정의와 자유를 증진시키며 불의에 과감히 대결해야 한다.

각국의 위정자들과 국제기구의 지도자들은 평화를 위해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한다. 과감히 분쟁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군비축소를 실천하며 전쟁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가 평화를 위해 교육되어야 하며 자신 안에 있는 평화를 위한 확신과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3. 그리스도인이 할 일

“지상의 평화는 하느님이 마련하신 질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룩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지상의 평화, # 1) 따라서 신자들은 평화에 대한 교육에 헌신할 때 신앙에서 빛과 동기, 그리고 힘을 얻게 된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 9)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염원을 한 하느님의 한 형제로서 한 가족을 이루라는 하느님의 근본적인 부르심에 부합한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성사들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강한 힘을 본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본다.

평화는 우리의 일하면서도 하느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평화를 가르치고 평화를 위해 일하라. 역사의 마지막 단어는 평화이다.

요십이 (283) 김병오



결 (축) 혼

안복래씨 3남 윤서(다두)군
강갑상씨 3녀 성숙(울리엠타)양
일시: 79. 1. 7 <일> 12시
장소: 전주 중앙성당
주례: 안복진(요셉) 신부님

□ 일자리를 찾습니다

- 할수있는 일 운전(경력2년)
-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전주시 서서학동 372-2

김귀동(베드로)

연락처... 0396번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정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6

결 (축) 혼

이영문 씨 차남 승호(다마소)군
박문순 씨 장녀 기순(미카엘라)양
일시: 79년 1월 6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전동 천주교회
주례: 김환철 신부님

롯데·해태·유명제과 메이커 대리점
※교우님들에게 특별봉사하겠습니다

식료·과자류 도산매

이안(李安)상회

□관선동 파출소 옆(舊·유안상회)
☎(商) 2681·(自) 9724

이영문(안드레아)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신년 교례회...79년 1월 1일<월> 오전 11시 반, 가톨릭 센터
① 11시부터 등록 ② 회비 1,000원...간단한 중식과 기념품(79년도 신자수첩) 드림
 2. 가톨릭 의사 모임...신년 교례회 후, 천주교 신자 의사들을 초청합니다(가톨릭 센터에서)
 3. 남성 제12차 푸르실료...79년 1월 4<목>~7<일>, 가톨릭 센터
※ 신배 푸르실리스타의 협조 바람...빨랑카, 개회식과 마나니파 및 폐회식 참석
 4. 본당 실무자 교육...79년 1월 9일<화>~11일<목>, 가톨릭 센터
 5. 사도회 임원 연수회...79년 1월 17일<수>~19일<금>, 가톨릭 센터
※ 각 본당에서는 3명씩 참가시킬 것 (2월 1~3일에 있을 제2차 연수회를 감안하여 회장단 2명, 선교 전배·봉사·재경 위원장 각 1명씩, 도합 6명의 대상자 가운데 3명씩 안배 하실 것)
※ 회장단 1명은 유능한 지도자도 가하고, 위원장 대신에 해당 위원이나 유능한 지도자도 가함.
- 숲정이 편집실 전화통기 설립, 감사합니다
무주 본당 5천원, 무주 절친공소 2천원, 덕진 중영기 3천원, 노송동 유영철 5천원, 임실 오정남 1천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응복
보좌 신부 송승현
보좌 신부 임영배
사도 회장 이복석

1. 꾸리아 연총 친목회
3일<수> 오전 10시(강당), 도시락 각자 지참
 2. 어머니 합창단 릴레회: 4일<목> 오전 10시
 3. 성심 부녀회 릴레회: 5일<금> 오전 11시
 4. 4분과 위원장 개선
선교-김준성, 봉사-원현식,
재경-김정생, 전례-임주백
※ 감사: 오중원, 김영준
※ 고문: 강재희, 김정기(진북), 김철근, 김올배,
김한영, 양학도, 장남수, 이상범, 백일성,
김정기(경원)
 5. 예비자 교리는 2월부터 시작합니다
 6. 영세 사진 찾아가세요(수녀님)
 7. 전례담당
31일: 봉사-김한영, 김영준, 해설-한문권
7일: 봉사-안재홍, 김옥기, 해설-장남수
- 성탄 봉헌금: 509, 151원

2. 축! 영세: 지난 23일 42명 받았읍니다
 3. 기증: 성당 의자에 고급 방석을 두분이 20만원 들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미수 교무금 속히 완납 바람
 5. 79년도 교무금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책정하였으니,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및 교무금: 388, 57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성 가정주일: 분장 주보 축일
 2. 주일학교 발표회: 10시 미사후
 3. L.M 연총 친목회: 금주대로
 4. 성탄 판공 성사자: 688명 감사합니다
 5. 신년 교례회: 1월 1일 11시(가톨릭 센터)
- 지난주 봉헌금: 44, 855원 성탄헌금: 108, 89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신년 교례식: 79년 1월 1일 (가톨릭 센터)
 2. 어머니 성기대·부녀회 1일 피정: 31일 공식 미사후
 3. 사도회 릴레회: 1월 7일
 4. 누갈다 부녀회 릴레회: 1월 6일
 5. 사목교서 교육: 1월 7일 공식 미사후
 6. 성당 신축 기성회 임원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283, 555원
성탄 특별헌금: 74, 635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복

1. 성 가정 축일: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2. 성체 강복 및 자정미사: 오늘 밤 11시 40분 성체강복 밤 12시-자정미사 많이 참석하시어 한해를 보내면서 또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구원을 청합니다
 3. 미사시간 안내: 12월 31일-오전 6시반, 오전 10시 오후 7시, 밤 12시
1월 1일-오전 10시, 오후 3시(아동미사) 저녁 7시
 4. 형제회 릴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5. 어머니 합창단 정기총회: 5일<금> 오전 10시 미사후 모든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 본당 올드레아: 12월 31일 저녁 미사후(8시)
본당내 푸르실리스타는 전원 참석하세요
- ※ 축! 혼인 미사
12월 31일 1시
신랑-윤 안토니오(승호), 신부-안테레사(순금)
1월 6일 12시
신랑-고 도마(복기), 신부-이 혜숙양
1월 7일 오전 10시
신랑-박 요한(사무장), 신부-강 헤레나(옥분)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중

1. 신년 축하 미사: 1월 1일 10시
신년 교례회: 1월 1일 11시 30분(회비: 1,000원, 장소: 가톨릭 센터)
 2. 글라라 형제회: 재 선처식 오후 1시 30분
 3. 예비자 교리: 주일-9시 미사후(학생), 10시 미사후(일반), 수요일-저녁 미사후(직장인)
 4. 영세 사진 찾아 가세요(사무실)
- 성탄 봉헌금: 864, 289원 교무금: 170, 2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행
사도 회장 유제상

1. 학생회 릴레회: 공식 미사후
 2. 많은 협조로 무사히 성탄 마쳤읍니다
 3. 새로 영세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4. 아직 판공 성사를 보지 않은 분들은 주일에 성사를 보세요
 5. 성탄 준비에 수고하신 주일학교 어린이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46, 930원 교무금: 93, 435원
성탄 봉헌금: 150, 29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 회장 채수현

1. 평화의 날 미사: 1월 1일 9시 30분
 2. 성령 세미나: 1월 마지막주로 연기
 3. 망년 미사: 저녁 미사후 회의실에서 송년회가 있습니다
 4. 예비자 모집: 다음 영세를 위하여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5. 1월 4일 푸르실료: 우리 본당 4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 성탄 준비에 협력하신 모든이에게 감사합니다
 7. 판공 성사: 아직 판공 성사를 보지 못한 분은 예 수 공헌 축일 전까지 보세요
- 지난주 봉헌금: 89, 145원 성탄축일: 92, 21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중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릴레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